



2026. 7. 16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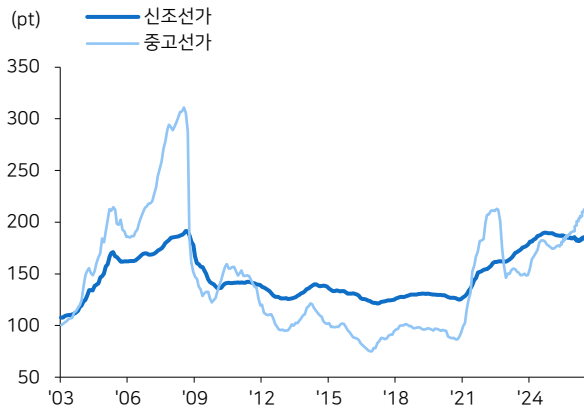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4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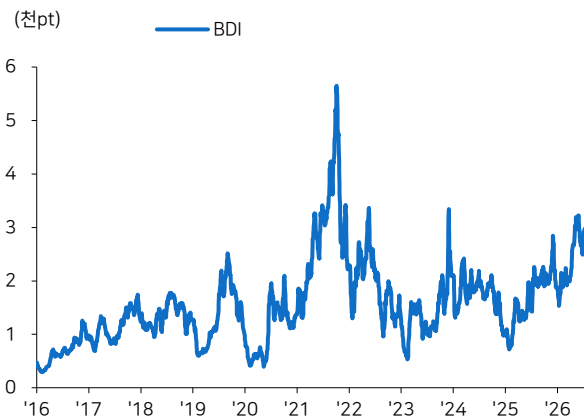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2.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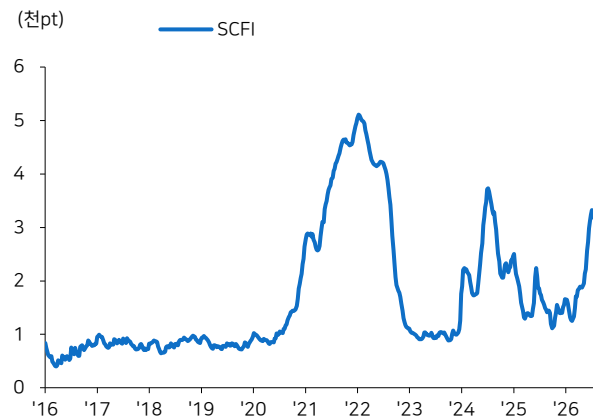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980.0p (+2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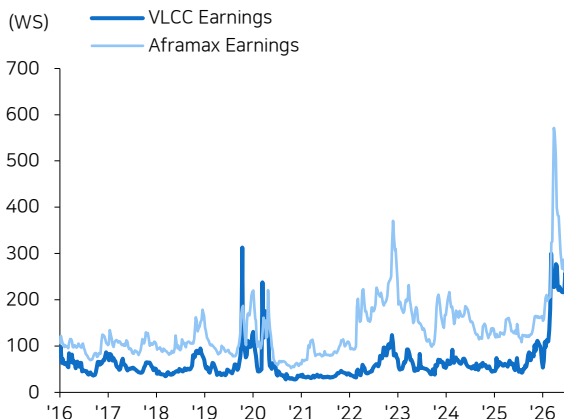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184.8(-142.1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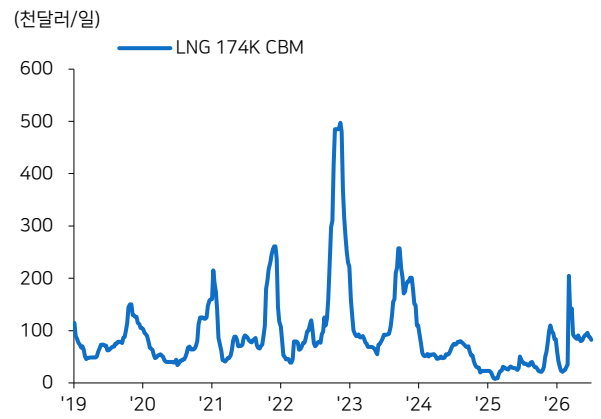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17.6WS (+29.7p WoW)



LNG Spot 운임

86.5천달러 (+4.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트럼프 "해군 재건위해 韓기업 검토"...한화 "한국 역량 美 이전" (뉴시스)

<https://zrr.kr/6T8xH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육군 전쟁대학에서 해군력 재건을 위해 한국 등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함 구매를 추진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고 보도됨. 이번 방침에 따라 미국은 자국 내 조선업 역량 강화는 물론, HD현대중공업 및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와 협력하여 필라델피아조선소 등을 활용한 군함 건조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라고 전해짐. 특히 한미 양국 정상에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 국방부가 국내 조선사에 정보 요청을 보내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미 해군 함정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제한하는 관련 법규를 넘어서 실질적인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알려짐.

Delfin Midstream reveals latest moves on US floating LNG project (Upstream)

<https://zrr.kr/13QT9q>

Delfin Midstream이 미국 멕시코만에서 운용할 두 번째 FLNG를 위해 Siemens Energy에 핵심 장비 구매를 위한 제한적 착수 통지를 발행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려짐. 또한 Delfin Midstream은 투자 그룹 EIG가 설립한 MidOcean Energy와 해당 설비에 대한 최대 50%의 지분 인수 및 생산 물량 확보에 합의하고, 잠재적인 세 번째 설비에 대한 공동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전해짐. 이번 두 번째 설비는 첫 번째 설비와 동일한 설계를 적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2026년 말까지 최종 투자 결정을 거쳐 연간 44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보도됨.

HD 현대, 페루 해군에 차세대 잠수함 설계 세부계획 제시...포스코인터도 개발 파트너 역할 특목 (더구루)

<https://zrr.kr/1LtXK6>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 및 시마조선소 관계자를 초청해 차세대 잠수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 세부 내용을 공유하며 연내 건조 계약 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됨. 이번에 추진하는 중형 잠수함은 HDS-1500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선급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여 현지 맞춤형 잠수함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시마조선소와 공동개발을 진행해 온 만큼 이번 사업을 성공시켜 최초의 잠수함 수출 성과를 거두고 K-잠수함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으로 알려짐.

외국인 2만명 일하는 K 조선소...200명 분노의 노조 집단가입 (중앙일보)

<https://zrr.kr/RzisRL>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소속 외국인 노동자 200여 명이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기본급 삭감과 차별에 반발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집단 가입했다고 알려짐. 이번 가입은 최근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발생한 이례적인 사례로, 업계에서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짐. 조선업계는 그간 저임금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았으나, 정부의 비자 정책 변화와 노조의 집단 행동이 맞물리면서 실질 임금 인상 및 숙련도 향상을 포함한 인력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보도됨.

한화, 인적분할 완료...그룹 3세 독립 경영 체제 마무리 (조세일보)

<https://zrr.kr/9YjMkr>

한화그룹이 15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한화를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인 한화머시너리언서비스홀딩스로 나누는 인적분할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장남 김동관 부회장과 삼남 김동선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3세 독립경영 구도가 한층 선명해졌다고 알려짐. 이번 분할로 존속회사에는 그룹의 핵심인 방산·조선·에너지 및 금융 부문이 결집되고, 신설회사에는 테크 및 유통·레저 부문이 편입되면서 각 사업 영역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전망이라고 전해짐. 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배구조 재편이 한화에너지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한 김동관 부회장의 승계 구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김동선 부사장이 신설법인을 통해 독립적인 경영 보폭을 넓히는 본격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됨.

Turkey starts storage expansion on key LNG import terminal (Upstream)

<https://zrr.kr/7Qg3bz>

튀르키예 국영 에너지 기업인 Botas가 마르마라 LNG 터미널의 저장 용량을 기존 415,000입방미터에서 63% 확대하기 위해 16만 입방미터 규모의 네 번째 저장 탱크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고 보도됨. 이번 확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인해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전해짐. 저장 용량이 증대되면 대형 LNG 운반선인 Q-Flex와 Q-Max의 하역이 용이해지고, 가스 수송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가스망에 대한 최대 일일 기화 공급량을 더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